

전국 유적 CD에... '일 살리기' 초석

수요인터뷰

문화유적 전산화 착수
문화재연구소 장경호 소장



문화유적 관리에도 첨단시대가 활짝 열렸다.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연구소는 최근 전국규모의 문화유적종합 작업을 위해 유적현황 전산입력작업을 준비중이다. 지난 4월 문화재연구소 개소 20년을 맞았으며 아울러 문화유적 전산작업에 착수한 문화재연구소 장경호소장(60)을 만났다.

-전국에 산재한 문화유적이 두장의 CD롬에 담겨진다니 획기적인 일로 여겨 집니다. 앞으로 유적보호는 물론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절대적으로 활용될 전망인데 어떻습니까.

▲CD롬의 전산화 작업은 우선 전국문화유적종합의 보완작업을 위해합니다. 지난 77년 <문화유적종합>이 발간됐지만 1만1천6백70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락된 유적들이 많지요. 이후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가야문화권 등 문화권별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각 지역 대학·학원단체에 의해 조사된 것이 1만7백여건, 지방문화재연구소 등을 통해서 새롭게 파악된 것이 1만여 건 등 3만건 이상의 유적정보를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초작업으로 CD롬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고속철도가 통과하고 경마장 건설이 추진중입니다. '문화유적파괴'라 반대하는 학계와 '지역발전 촉진'이라는 주민들이 광범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지난 89년 공청회가 열렸을 때 경주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고 구도시는 '고도 보존특별조치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습니다만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주에 지금 15층짜리 고층아파트가 건설돼 있어요. 몹시 시각적으로 거슬립니다. 경주 시민들이라고 살기에 편리한 아파트에서 살지 말라는 이유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경주라는 고도의 전체주위 환경을 고려해 5~6층 정도의 낮은 건물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경제성과 금전적 이익만 생각해서 높은 건물을 지어놓으니 문제지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역사도시들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앞장서 보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주 등 古都 보존대책수립 전국민 뜻 대형 불사 지양... 환경조화 우선돼야

훼손 사전예방 자료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십니까.

▲제주도부터 시작해 올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8개지역 유적에 대한 일대 조사에 나서 올해 말쯤 CD롬 1장에 담을 계획입니다. 유적별로 명칭·소재지·내용·관리자 등의 일반정보와 함께 참고문헌 등이 상세히 소개, 지역별·유적별·시대별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도에서 시 군 읍 단위의 유적을 CD롬에 담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전산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공간조성, 토지구획정리 등 각종 개발사업이 워낙 많아지니까 문화재관리국에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개발하려는 곳에 유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지요. 관리국에서는 우리 연구소로 문의합니다. 그러면 조사된 자료를 취합해 회담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걸리죠. CD롬이 제작되면 카피해 각 시·군 문화재 관리국에 하나씩 비치 검색해 보면 해당지역에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일반만 해도 교묘나 나라에 사는 주민들은 건설정책이 자기네 역사적 지역과 상충되는 것이면 자체적으로 전단을 돌리는 등 반대가 극심합니다.

-전에 아파트를 짓는다, 도로를 만든다 하다가 유물들이 나와 신고하고 하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두려워 쉬쉬하면서 불도저로 밀어버렸었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 지역의 편의와 발전을 이유로 무분별한 개발이 상대적으로 문화재 훼손을 초월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개발과 보존은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이 문화재 보존과 항상 상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타협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경주의 고속철도 어느 위치냐 하고 미리 설계 다해놓고 발표하거나 문제입니다. 위치 설정할 때 문화재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데 먼저 발표해 놓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어떤 공사이건 사전에 관련학계, 환경·문화재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타협점을 찾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해인사가 있는 가산에도 골프장이 들어선다 하여 사중스님들과 신도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적이라는 것은 그 유적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하지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아름다운 산과 물을 얼마나 파헤쳤는지 우려를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가야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걸 스님들이 앞장서 막으셨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점자 할 불사도 어느때 보면 담판한 점자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해인사는 기막히게 주위 산세와 잘 조화된 건물입니다만 구공부를 보수한다고 해 허가했더니 어울리지 않게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원래 구공부는 예쁘고 아담한 담우리 주위 산과 장경관과 잘 어울린 건물입니다. 크고 높게 지으니 전체 조화가 깨져 구공루 앞에 서면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지 알아보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전문가와 상의한 다음 전체적 조화를 생각해 불사를 하겠으면 합니다.

-30년째 문화재 관리국과 인연맺으며 의길을 걸어오셨는데 보람이 있으시다면.

▲제가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전통 한국의 건축을 대부분 접할 수 있게 되고 전통 건축의 맛을 알 수 있게 된 점이 문화재와 인연맺은 수십년의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75년 개소당시만 해도 문화재연구소는 43명 밖에 안되는 인원과 시설, 예산이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개의 연구실과 3개의 지방연구소로 확대 발전되어 상근직만도 150명이 넘습니다. 보존과활성의 경우 박사들이 첨단장비로 유물을 분석합니다. 또 발굴전에도 유적이 어느정도 있다는 것을 첨단장비로 밝혀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한 것을 보면 보람이 큼니다.

-건축을 전공하셨지요.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축을 꼽는다면...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무량수전 자체만 해도 지극히 좋은데 자연적 확대와 주위 환경과 조화된 모습은 보면 볼수록 끌리지요. 언젠가 건축학회 회원 20명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넋을 잃고 바라보느라고 무량수전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경숙 기자

나의 수행일기

박영근 수원천인테라오대학

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운천동 금정산 자락에 있는 천태암에 어머니의 지극정성 기도로 이 세상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나와 부처님의 인연이다.

우리 집안은 부산 동래구에서 15대째 대대로 부처님께 귀의하며 살아온 불교집안이다. 천태암과 동명사를 아버님의 이모님과 고모님께서 참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가까이 할 기회가 많았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나를 천태암 석불(돌 부처님)에게 맡겼다고 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절에 가면 무조건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삼배를 올리게 하셨다. 학창 시절에는 고시공부를 한참하고 정국 큰 사찰은 다 돌아보았다.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하동 쌍계사 그리고 사리암, 보리암, 운수암, 백련암, 봉정암, 오세암 등 많은 암자와 사찰을 돌아다니던 기억이 떠오른다.

70년 11월 사리암에서의 일이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활짝 열고

리,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자식의 도리를 열심히 충실히 하는 것이 복 받는 일이라 강조하셨다. 심지어 부처님 오신 날 언들을 달아도 대웅전내에 달려고 하지말고 남이 달지 않는 어둡고 힘든 지리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등불로 인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연등의 의미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항상 만족되게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 이후 나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부산불교살림인회에 가입할 수 있었고, 또한 총무이사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다. 그동안 숭한 법회를 보아 왔지만 부산불교살림인회의 회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라고 생각하며 동참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

"마음을 낮추며 살자" 항상 다짐

큰스님 법문 듣고 신행의 지침 삼아

우리 불교살림인회에서는 매일 사찰을 찾아 월례법회를 연다. 지난 5월 일례회 부산 진구 가야동에 있는 신승사에서 흥교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열었다.

5월 법회에서 흥교 스님의 법문은 '下心'이었다. '下心'이라는 법문중에 마음을 낮추며 불평과 불만을 있을 수 없고, 다툼과 화를 독의 힘이라 생각한다. 87년 귀국하여 법어사 원효암 강지우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당시 강지우스님의 법문 주제는 '마음'이었는데 항상 잊지 않고 있다. 스님 말씀이 마음에 보이지도 않고 무게도 없고 색깔도 없고 부피도 없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인간을 움직이게 한다. 또한 웃게해서 즐겁게 만들고 또 울게해서 슬프게 만든다.

즉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보이지도 않는 마음의 차이며 만족과 불만족도 보이지도 않는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하시면서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부처님께 배배 찬배만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하셨다.

염불을 잘 하고 시주를 많이 한다고 남보다 열배 배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살아하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것, 아버지의 도

남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나의 가슴에 와 닿았으며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가슴에도 큰 감동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한다.

8년전에 자유 큰스님께 들은 '마음'과 흥교 큰스님의 법문인 '下心'이 부처님을 향한 나의 불심을 한층 더 성숙시키고 있다. 이렇듯 도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큰 스님들을 찾아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가슴에 새기는 것은 내 신행의 중요한 지침이며 중심이다.

나는 항상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마음으로 산다. 지금까지 건강을 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또 내가 하는 인테리어와 디자인 협회 회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것도 부처님의 공덕이시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 가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부처님의 뜻을 기리며 매주 일요일 새벽마다 부처님을 뵈러 사찰을 찾는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권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 (02)737-0697

법화경 강좌

강사 최경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 645-6224 대구: 952-8711

연꽃방

서울시 중구 건지동 110-43 전화: 738-9933 (지택) 934-1748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20-9372-3 FAX: (02) 723-0646

여직원 급모집

탄허 불교 문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모 단정한 여직원을 모집합니다.

- 다름
- 여고 졸업자 약간명
- 30세 미만
- 불교 신자 또는 불교 활동을 한 자
- PC 가능자

제출 서류: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부착·전화연락처 기입),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방문요함)

제출처: 서울 중구 신당3동 368-100 전화: 237-4438 탄허 불교문화재단

윤 조각실 (불교미술원)

- 부처님 조성
- 청동불 조성
- 대불조성
- 천불전
-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 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7-4 글썽B/D 2층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첫눈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철술

과우로만 철술정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 온라인·농협·이마트·홈플러스 (서울·경기) ● 전화: (02)556-3076-7 ● 팩스: (02)556-3078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장영 5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융합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범종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에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자를 실의 다수

문의: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성)

대한교육평기원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4월·8월

국고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배우는 한글 '강의해설교재'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고교 졸업과정: ○ 철저한 1:1 '담당 관리제' ○ 대학 졸업과정 * 합금 숙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신영희(72세, 할머니): 中·고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中·고·대과정(36개월)

특전: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성·수) '비디오파인' (1인45분)

원저한 학습관리 |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호(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서비스 080-023-4600